

# 일본적 공간개념의 분석에 의한 일본 현대 실내공간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Contemporary Interior space  
by Analysis of space concept of japanize

박세정\* / Park, Se-Jung

박찬일\*\* / Park, Chan-Il

## Abstract

In order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Japanese conception of space, we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human geography, schools of thought, and aesthetics through the examinations on relevant documents. In addition, we reorganized such cultural backgrounds in relation to the Japanese perception of space, extracting the fundamental principles and elements of Japanese space composition and examining their significance. We propose a structur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nd analyzing Japanese space based on the reciprocal relationship and meaning among the various elements of Japanese space. Using this analytical framework, we studied the representative works of Japanese interior space, concluding in an analysis of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the Japanese notion of space.

키워드 : 일본적 공간개념, 전통 공간, 표현특성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공간은 인간의 생활양식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지며 생활문화의 특성에 의해 그 의미가 해석되고 認識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디자인 한다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틀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認識체계 즉, 시간적인 연속성 속에서 형성된 문화적 요소들의 구성과 재생에 의해 형성된 비물질적 요인들에 의해 형성되어온 認識의 總合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이러한 독자적인 공간개념과 인식이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적 측면에서의 공간개념은 공간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그 실체의 파악은 인간과 공간의 적절한 관계 형성에 필요불가결한 要件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일본의 공간을 형성하는 배경이 되어지는 일본의 전통적인 공간개념의 분석과 고찰을 통하여 공간의 실체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틀(체계)을 제시하고, 이 틀의 적용을 통하여 현대의 실내공간에 나타나는 일본적 공간개념<sup>1)</sup>의

표현특성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일본적 공간개념의<sup>1)</sup>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 형성배경이 되는 일본의 인문 지리, 사상, 미의식의 특성을 문헌조사를 통하여 정리, 고찰하였다<sup>2)</sup>. 또한 이러한 여러 문화적 배경을 일본적 공간 인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재정리하여 일본의 공간 구성의 원리와 구성요소를 추출하고 그 의미와 특성을 고찰하였다. 일본의 공간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들의 상호관계와 그 의미를 중심으로 일본적 공간의 실체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틀(체계)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제시된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일본적 실내공간의 대표적 작품<sup>3)</sup>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일본적 공간개념의 표현특성을 분석, 정리하였다.

## 2. 일본적 공간개념의 형성 배경

### 2.1. 인문 지리학적 배경

1)본 논문에서의 일본적 공간개념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문화 역사적 배경으로부터 공간을 인식하고 점유하는 방식으로, 생활사상, 미의식, 인문 지리학적 요건등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공간에 대한 意識적인 개념을 의미한다.

2)일본문화의 정체성이 명확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헤이안 시대부터 에도 시대까지를 중심으로 관련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3)최근10년 간 <日本商店建築>에 게재된 和風디자인 사례 작품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 정회원,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실내건축설계학과 석사과정

\*\* 정회원,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실내건축설계학과 조교수, 디자인박사

일본은 고온 다습한 기후와 풍부한 목재생산으로 통풍이 좋은 개방적인 목구조 건물이 발달하였다. 기둥과 들보가 구조적 역할을 하여 벽체는 가벼운 반고정식 형태를 취했고, 강수량이 많아 처마와 지붕물매가 깊었다. 또한 지진 등 자연재해의 빈발로 가구 역시 현실 대응력이 있는 이동이 편리하고 간소한 형태를 취하거나, 건축에 편입되는 경향이 있었다.

삼면으로 둘러싸여 있는 바다는 자연방어의 역할을 하여 외세의 침략을 막아주고, 유입되어 온 선진대륙문화를 적절히 선택 수용하였으며<sup>4)</sup> 일단 수입된 문화는 기존 문화와 빠르게 융합되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sup>5)</sup> 재해석 하고 재편집해 내는 과정을 통해 일본 특유의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었다.

## 22. 사상적 배경

### (1) 우주론적 자연관

일본에는 자연에 대한 근본적인 의식이 외연적으로 표현된 차경(借景)이라는 말이 있는데<sup>6)</sup> 건너편에 실재하는 풍경을 '빌린다'는 의미로 의식 속에 확대된 정원을 고안한 것이다. 또 자연명소나 세계관을 응축한 축경(縮景)이라는 수법은 축소되고 상징화된 초자연적인 공간을 만들어 명상하는 庭園術이다. 이처럼 일본의 공간은 자연을 끌어놓고 자연에 동화 하는 것에 의하여 성립했다<sup>7)</sup>. 공간 안에 자연을 자기화 하며 認識 속의 또 하나의 자연인 소우주를 형성해 자연을 바라보았다.

### (2) 범신론적 종교관

일본인들의 자연신앙이자 토착신앙인 神道는 종교라기보다는 민족의 원리 자연과 우주관이라고 할 수 있다<sup>8)</sup>. 그 바탕에는 인간과 神의 구별이 없고 인간이 곧 우주에 핵심이라는 범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神道の 초기 제례의식에도 나타나듯이 이러한 세계관은 神과 인간의 공간을 구분하기보다는 서로 공유하고 있다. 한편으로 범신론적 세계관은 우주, 즉 자연을 숭배하여 건축물까지도 신격화하였다. 현실 속에서도 神의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고, 幻影의 공간이 아닌 구체적인 실체를 가진 공간을 추구하였다.

### (3) 이원적 사고관

神과 人間, 神과 物質, 靈界와 物質界 사이의 애매한 구분에서 불교 정토사상의 보급과 함께 예토(穢土)와 정토(淨土), 인간의 세계와 諸佛의 세계등과 같이 세계를 둘로 나누는 이원적 사고 관이 생겨나게 된다.<sup>9)</sup> 이러한 사고관에 의해 공간에서는 聖과 俗의 세계가 존재 하게 되고 그것을 연결하는 장치공간이

4) 최관, 일본문화의 이해, 학문사, 1999, p.32.

5) 김용운, 일본인과 한국인, 뿌리 깊은 나무사, 1984, pp.186-195

6) 이진민, 일본인테리어 디자인과 한국 인테리어 디자인과의 상관성, 월간인테리어, 1999.

7) 黒川紀章, 길과 건축, 태림문화사, 1986, p.117.

8) 카즈오니시, what is Japanese Architecture, 古談社, 1983, p.40.

9) 井上充夫, 日本建築の空間, 鹿島出版會, p.141.

생긴다. 그러나 이러한 이원적 사고관은 물리적인 공간의 완전한 분리가 아닌 인식적인 분리이며, 구분은 있으나 물리적으로는 불확실하고 모호한 경계를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 23. 일본인의 미의식

일본의 미의식은 선명하거나 강렬한 것이 아니라 내면적 감동이 동반된 은은한 정조를 그 기조로 하여 그 정의를 뚜렷이 제시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문학, 예술 작품을 통해서 저절로 익혀지는 것으로 다분히 애매한 감성을 선호하는 일본인의 성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일본 미의식의 큰 흐름을 짚어보면 헤이안시대(중고)의 모노노 아와레(もののあわれ), 중세의 유젠(幽玄), 근세의 사비(さび) 와비(わび)로 이어지고 이들은 서로 유사한 특성을 지니면서 조금씩 시대적 특성을 반영하며 계승 발전되었다.<sup>10)</sup>

모노노 아와레의 비애, 한탄의 미 幽玄의 어둠, 정적, 생략, 제거의 미, 사비의 소박, 덧없음, 황폐의 미, 와비의 고요, 빈곤, 결핍의 미등 일본의 미의식은 불완전, 불균형 불투명, 불확정의 역설적 미학이다. 이는 선(禪)사상과 함께 공간을 인식하는데도 작용되어 암시와 餘情의 미가 강조되고, 모호한 경계개념 등으로 양면적인 성향을 띠는 공간이 나타난다.

한편으로, 일본의 미의식은 끊임없이 상징화하는 작업을 통해 미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생략 제거에 의해 매우 상징적인 것만 남기고 그것이 하나의 深遠한 사상의 단면까지 보여주는 미의식이다. 이도 선(禪)사상과 부합하여 기능은 사라진 극단적인 상징성의 공간이 나타나게 된다.

## 3. 일본적 공간개념의 구성 원리

### 3.1. 일본적 공간관

일본적인 공간은 시공사이의 두 점 또는 두선 사이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인간의 경험이 더해지는 다차원적인 성격을 갖는다.<sup>11)</sup> 공간은 하나의 물체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문화 전통 풍속과 관계된 것으로 서구인들이 공간을 마치 단순한 물체로 인식한 반면 일본에서의 공간은 우주를 뜻했으며, 사물의 구성 물체로 상징적 의미나 성격을 다루어 물리적인 영구성은 중요시 되지 않았다.<sup>12)</sup> 이처럼 일본의 공간관은 물리적 실체에 의해 만들어진 물리적 공간뿐만이 아니라 물리적 공간에서 확장된 認識적인 공간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물리적 실체 없는 공간관이 일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10) 유옥희, 日本學誌 제19권, 芭蕉의 사비 小考, 1999, p.179.

11) Heinrich Engel, the Japanese House, CH. Tuttle Co, 1964, p.233.

12) Botond Bognar, Typology of Space-Construction in Contemporary Japanese Architecture, Process25, p.135.

## 32. 일본적 공간개념의 구성 요소

### (1) 設(しつらい 시츠라이) - 유통성, 유기적, 轉用, 규격, 단순

중세 귀족의 寢殿造양식은 운동장 같은 넓은 공간만이 있어 그 내부에 여러 가지 칸막이나 도구를 설치하는 室祀에 의해 사용되어졌다. 여기서 室祀란 아무것도 없는 방에 필요에 따라 가구나 소품을 사용하며 사용이 끝나면 본래의 장소에 돌려놓는 일본적인 공간 사용법을 의미한다. 공간은 계절이나 목적에 맞게 그때마다 轉用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병풍등과 같은 가변적 요소로 구획해 공간의 유통성을 높인다. 이러한 단순한 공간은 수평으로 무한히 확장되는 내부공간을 만들어 유기적 구성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실내 평면의 유기성, 유통성은 가구에도 영향을 끼쳐 시간대별 계절별 일상 또는 비일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사용 후 수납'의 특성이 강조되어 왔다. 다른 기능들보다도 수납기능이 특별히 발달한 데에는 이와 같은 실내 공간의 운용상의 특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sup>13)</sup>

疊(다다미) 역시 현재 바닥마감재로 사용되지만 원래는 寢殿에 있어서 室祀 중에 하나였다 초기 疊은 앉거나 누울 때 커다란 방석 같은 장소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행위에 따라 배치가 변할 수 있었다. 이 앉는 도구로가 방 전체에 깔리게 되어 건물의 일부가 된 것이다. 疊 한 장의 크기는 정신적인 여유가 포함된 신체 크기를 고려한 것으로 현재에도 평면계획법의 규격수치기준으로 방의 크기, 기둥의 배치 등을 결정한다.

규격성을 가지는 疊과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室祀의 유통성은 서로 상충되는듯하나 일본의 공간이 가지는 특질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設의 공간개념은 규격성을 기반으로 유기적으로 엮여있는 것으로, 합리주의적 유통성이며 여기에는 정신적인 여유까지 포함된다.

### (2) 仮(かり 카리) - 가설, 신선, 변화 새로움, 異공간, 현재성

仮의 공간은 가설적 공간으로 일본 공간의 가설성은 신의 존재를 전제로 시작된 것이다. 새롭고 청결한 느낌에서 聖性を 느끼는 일본인에게 이 聖性を 만들어내는 것이 '변화'였다. 변화가 없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과의 교섭을 위해 何もろぎ(히모로기) 磐境(이와사카), 社(야시로) 같이 변화적이고 임시적인, 신선한 가설적 공간을 만들었다. 이외에도 儀禮를 위한 공간이나, 단순히 천을 펼친 노다테(野店)나 가부키를 위한 가설극장 芝居小屋(시바이고야) 등 일본공간에서 가설공간은 자주 등장한다.

여기서 가설적 공간이란 일상 속에 비일상적 異공간으로 비일상성은 신선함을 주고 현재성을 강조한다. 일본에 있어서 異공간은 神의 공간을 의미했기 때문에 비일상적인 신과의 의례에 가설공간이 이용되었던 것이다. 일본적인 순간적 미를 강

조한 '中今'이라는 사상도 이 가설공간을 뒷받침하고 있다. 즉, 가설공간은 認識에 의존하는 공간개념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또한 設의 공간개념에서도 말했듯이 일본의 내부 공간 자체가 가설성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져 있으며 仮의 개념은 設의 공간개념에서 파생되고 심화된 공간개념이라 할 수 있다.

### (3) 囲(かこみ 카코미) - 意識적, 한정, 축소, 비밀상

囲의 공간개념은 공간을 무언가로 한정하고 둘러싼다는 의미이며 일본인의 모호한 경계감각과는 달리 매우 명확한 벽으로 단혀진 공간개념이다. 그러나 囲는 물리적인 한정만이 아닌 의식 속에 한정되어진 공간을 의미한다. 그 한정함으로 일상을 파기하는 비일상적인 관념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한 대표적인 예로 다도가 행해지는 다실공간(小間, 數奇屋)<sup>14)</sup>은 물리적으로 공간을 한정하는 것으로 출발해 점점 작아지게 되고 대공간에서는 느낄 수 없는 친밀함과 농밀함으로 또 다른 이질적 세계를 만들고 있다. 물리적인 공간의 극심한 한정은 그 공간의 크기를 넘어선 意識적인 무한의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다실공간은 실제적인 삶을 위한 건물이 아닌 심미적인 삶을 위한 공간으로 외관은 평정하고 우아하면서 비대칭적인 구성을 갖고 명백하고 단순한 형태를 취한다. 3평도 되지 않는 작은 공간은 와비의 소박한 미를 추구하며 차를 마시는 의례(茶の湯)를 실천한다. 다실은 비일상적인 공간이지만 이는 일상으로부터 격리된 공간이 아닌 자연과, 인간, 그리고 차와 관계를 갖는 연결적 공간이기도 하다. 다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露地(로지)라는 정원을 거치게 되고 이것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이다.

그런 의미에서 囲의 공간은 다음의 結의 공간개념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일본의 접대공간의 장식공간인 도쿄노마, 관념을 압축한 枯山水정원 역시 공간을 한정함으로써 기능은 소멸되고 意識적 공간으로만 남아 정형화 된 것이다. 즉, 축소지향적이라는 일본에 있어 축소라는 의미는 또 다른 커다란 의식적인 공간의 존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 (4) 縁(えん 엔) - 中間적 兩義적 모호성 연속성 완충 융합

개구부가 적은 벽식 구조인 서양에 비해 일본은 개구부가 유동적이고 내외의 차이를 명확하게 느끼기가 어렵게 되어있다. 내 외부의 명쾌한 구분 없이 넓게 열려진 공간은 외부로 연속해 반 외부 반 내부라는 중간영역을 형성하게 되어 결국 내부와 외부가 융합하는 형태로 공간이 성립하게 된다. 縁은 이처럼 A이면서 B이거나 A로도 B로도 쓰이지 않는 모호한 의미를 가진 경계적 공간을 말한다. 여기서 이 A와 B 두공간은 내부 외부를 의미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심리적으로는

14) 茶室은 數奇屋(스키야)란 말로도 쓰이는데 '數奇(스키)'라는 말은 고의적인 미완성의 비대칭적인 미를 나타내며, 또 동음이의어인 '비어있음'과 '좋다'라는 뜻으로 空家, 好家를 가리킨다

13) 이진민, 동양의 가구 한 일 중을 중심으로, 월간인테리어 1998.8 통권 155호, P114-127

공적 사적인 영역의 의미도 포함된다. 엔의 대표적인 표현양식으로 전통적 공간요소인 縁側(엔가와)가 있다. 전통주택에서 방의 바깥쪽 돌레에 설치하여 복도나 출입구로써 사용하는 좁고 긴 마룻바닥인 엔가와는 외기를 직접적으로 받는 의미에서는 외부이고 마룻바닥과 지붕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내부이다. 이러한 내, 외부의 구분이 모호한 엔가와와 내부와 외부의 물리적인 완충공간을 형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사람의 위치나 상태에 따라서 바라보는 자연이 근경에서 원경까지 다양한 장면을 만들어내도록 하여 심리적인 완충작용을 하기도 한다. 이와 비슷한 공간으로 飛庇(도비사시)나 土間(도마)도 内外와 公私라는 兩義적 경계 영역 속에 있는 공간들이다.

縁은 이렇게 내부와 외부를 직접적으로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다는 일본인의 경계 의식아래 내부와 외부의 연계방식으로써 두 공간을 공존시키고 연결하며 융합하는 공간개념이다.

(5) 通(とおり토오리) - 通過적 진입 연결 정화 의례 어프로치

通의 공간은 縁의 공간개념에서 통과적인 동적인 의미가 좀더 부각된 개념으로 공간에의 어프로치적 성격이 강하다. 특히 전통 일본공간에서의 통로의 의미는 발생적으로는 에피소드 중심으로 이루어진 物語(모노가타리)<sup>15)</sup>의 구성구조에서 알 수 있듯이 단편적인 공간요소들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로서 시작되어 聖과 俗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 時공간의 淨化적 요소로서 발달하였다.

중세귀족 양식인 寢殿造에는 중앙에 침전을 중심으로 각 殿을 渡殿(와타도노)라는 회랑으로 연결하고 있다. 또 일본의 전통도시주택으로 상점겸용 주택형태인 町屋(마치야)에는 길에 면한 店(미세)의 옆에 안쪽까지 이어지는 좁고 긴 通庭(토오리니와)가 있다. 町屋는 지역마다 차이는 있으나 안쪽까지 연결된 긴 통로가 존재하는 것은 공통된 형태로 후에 이 공간은 마룻바닥으로 개조해 복도의 형식으로 변해간다. 현대의 중복도형 주택에서도 보듯이 복도공간은 일본의 공간의 특성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일본은 공간을 인식하는 방법에 있어 하나의 통합적이고 수렴적인 방식으로 하나의 조직화된 전체로서 공간을 파악하기 보다는 다원적이고 발산적인 파편들의 연결로서 공간을 인식한다.<sup>16)</sup> 이 불연속적인 파편들은 공간에서도 애매하게 끊어져 있고 이어준다는 의미의 통로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연결공간이 아닌 통과적의 의미가 부여되면서 意識 속에 또 하나의 通過적 공간을 만들게 된다. 신사 불각의 參道는 속된 공간과 신의 공간을 연결하고, 일본 茶道의 露地<sup>17)</sup>는 일상공간으로부터 비일상의 공간을 연결한다. 露地는

일상의 俗世로부터 茶道를 위한 성스러운 곳으로 가기위해 마음을 정숙하게 하고 세속의 더러움과 일상의 잡념을 버리는 통과적의례의 관문 같은 곳이며 茶室이라는 별세계로의 접근로이다. 이처럼 通의 공간개념은 縁으로부터 파생되어 '통과'라는 개념에 의식적인 정화의 개념이 부가되어진 개념이다.

(6) 闕(しきみ 시키미) - 경계적 의식적 유통적 상호관계

일본적 공간개념안에서는 위에서 말한대로 명확한 공간분할이라는 의식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나누는 행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원적인 사고관에서도 보이듯이 세계를 끊임없이 나누어 생각하기 때문에 둘 사이의 연결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다. 闕의 공간개념은 이러한 '나눔'이라는 경계선상에서의 의미에 관점을 두고 공간을 파악하는 것으로 강한 분리의 개념이 아니다. 여기서 闕란 본래 문의 내외 구획을 설정하기 위해 까는 문지방의 횡목으로 만약 이것이 내부와 외부를 분리할 수 있다면, 이것은 물리적인 분리가 아니라 의식 속에서 생성하거나 소멸해 버리는 인식적 경계이다. 일본문화의 나눔의 개념인 闕은 항상 이러한 의식, 인식 안에서 성립되어지는 공간개념으로 현관 입구에 있는 上がり框(아가리카마치)나 신사의 입구에 있는 鳥居(토리이) 등이 그 좋은 예이다.

闕의 공간개념과 밀접히 관계하고 있는 것이 공간간의 상호관계나 공간간의 경계형성의 장치를 의미하는 仕切り(시키리)이다. 仕切り는 가볍고 얇고 동적인 경계 장치로 그 본질적인 구성과 함께 그것을 취급하는 인간의 작법을 통해 그 완전한 기능과 의미가 나타날 수 있다.<sup>18)</sup> 이 仕切り에 이용되는 건구는 병풍 등 단순한 칸막이를 비롯하여 미단이식의 움직이는 벽인 襖(후스마)와 障子(쇼지), 그리고 격자형태의 안이 들여다 보이는 格子(코우시), 비치는 천으로 된 簾(스다래)등이 있다. 이들은 벽처럼 물리적으로 상대공간의 행위나 대화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으나 암묵의 약속에 의해 확고한 경계의 의미를 획득한다. 이는 이 경계들이 假構된 의식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듯 闕의 공간개념은 공간의 의식적인 분할에 의해 공간간의 경계와 관계를 만들어내는 의식적 공간개념이라 할 수 있다.

3.3. 일본적 공간개념의 구성 원리

(1) 構(かまい 카마이)

構는 앞에서 서술한 設, 仮, 囲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作法이다. 設과 仮의 공간은 비어있으면서 유기적인 공간을 만들고, 囲의 공간은 한정함으로써 비일상적인 공간을 만든다는 공간의 구성 상태를 말한다. 構의 개념은 이들을 이루기 위한 作法원리로 오브제들의 상호 관계적인 구성을 말한다. 設(仮)과

하는 역할과 외부와 茶室 공간 구별하는 공간이다.  
18)中川武,日本の家TOTO出版, 2002, p.57.

15)이야기, 헤이안 시대부터 가마쿠라 시대에 걸친 산문문학작품  
16)Bognar Botond, (The)New Japanese architecture, 영문출판사, 장성수, 역, 1991, p.16.  
17)露地는 茶室에 부속되어 있는 뜰로 茶室에 이르는 작은 정원 혹은 좁은 통로를 말한다. 이 단어의 기원은 불교경전에서 나온 말로 '더럽혀지지 않은 장소' 즉 '청정한 땅'이라는 의미로 속세로부터 茶室으로 인도

罫의 공간은 이러한 오브제들의 여러 가지 미묘한 관계위에 성립하고 있고 그 관계가 약간만 어긋나도 전혀 다른 공간이 되어버린다. 일본의 공간에서는 이러한 物과 物사이의 관계성이 전체공간에 영향을 주어 공간의 성질이 바뀌게 된다. 일본의 공간은 비어있기 때문에 변화시키는 것이 쉽고, 극한으로 한정된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오브제와 오브제, 물리적인 공간과 認識적인 공간, 인간과 공간의 관계성이 그 공간의 성질을 좌우할 수밖에 없다. 즉, 構의 공간개념은 그 공간 안에서 미세한 관계성을 만들어 내는 공간의 형성개념이다.

(2) 結(むすび 무스비)

結은 위에서 말한 罫, 縁, 闕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작업이다. 罫, 縁, 闕의 공간이 두개의 서로 다른 공간을 둘러싸고 연결하고 나누는데서 나오는 境界적 개념들이었다면 結은 이들을 구현하는 作法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일본공간에 흐르는 공통적 맥락이기도 한 경계를 짓는다는 의미는 일본의 전반적인 공간구성원리의 중요한 테마라고 할 수 있으며, 나누어 연결한다는 일본인들의 경계개념의 독특한 요소이다. 일본의 공간 경계 수법인 結界(갯카이) 역시 認識 意識적인 경계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縁의 공간의 엔가와도 외부와 내부를 나누면서 연결하고자 하는 意識에서 비롯된 것이며 闕의 格子 역시 경계는 지으나 투과하고 연결된다. 즉 結의 공간개념은 두 개의 공간을 막지만 물리적인 막힘이 아닌 의식적인 분리에 의해 각 영역을 독립시키는 일본의 독특한 경계의식이다.

3.4. 일본적 공간개념의 총체적 의미와 구조

일본적 공간개념의 총체적인 의미는 空과 間の 개념으로 설명되어진다.

(1) 空(우츠)

空(우츠)는 구성요소들이 만들어 내는 공간개념인 設 仮 罫를 비롯해 이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인 構를 통합한 일본적 공간개념의 총체적인 개념이다. ウツワ(우츠와)는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것을 가리키고 ウツ(우츠)라는 것은 '공허'를 의미하며 공간이 비어있으면 오히려 무엇이든지 채워 넣을 수 있는 변화를 가능케 한다. 즉 空은 계절, 의례, 비일상 등으로의 변화를 전제로 한 것이다. 예로부터 일본의 공간이 단순화 된 것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공간은 장식적인 표현을 피하고 도구를 공간에 배치하는 것에 의해 표현되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빈 그릇과 같은 공간에 의식적인 부분을 추가시켜 또 하나의 실체하지 않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즉 空은 변화 가능한 물리적인 빈 공간과 의식적인 빈 공간을 동시에 만들어 내어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와 의식의 심화과정이 일본인의 생활 속에서 空의 공간개념을 만들어 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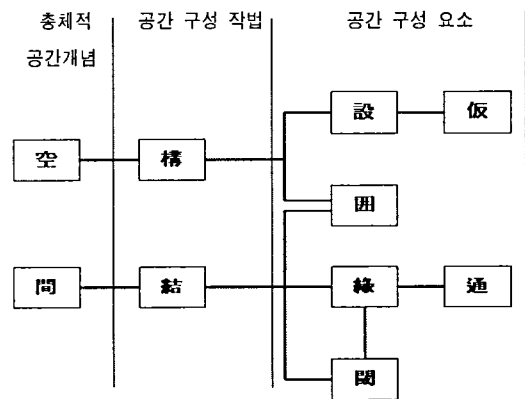
(2) 間(마 마)

일본적 언어개념 으로 間란 '무언가 사이에 끼여진 틈을

의미하며 공간과 시간을 표현하는 말이다. 間은 공간의 명칭으로 주로 사용된다. 예를들면 사용용도에 따라 茶の間 佛間, 바닥재료에 따라 土間 板の間로, 넓이를 나타내는 六量の間, 廣間, 또 공간간의 위계성을 나타내는 次の間, 上の間등으로 표현된다. 또 間은 길이의 단위도 되고 기둥과 기둥의 사이를 나타내는 間(けん)(182센치)의 단위에도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처럼 間라는 공간개념은 건축공간자체를 '間' 즉, 자연과 자연사이 혹은 자연과 인간 사이에 끼여있는 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건축적인 공간이 외부와 확고한 경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적 위치에 있다는 인식이다. 또한 공간개념으로써의 間은 연결을 위한 나눔으로 앞서 말한 연결하는 경계, 둘러싸인 경계, 구획의 경계가 사실은 공간의 연결을 위해 존재한다는 역설적 의미가 내포되어있다. 즉, 間은 틈과 사이라는 나눔으로 생긴 공간이 아니라 연결하기 위한 공간으로써 존재하는 것이다.

(3) 구조도

이상의 일본적 공간구성요소간의 위계와 관계를 고려하여 일본적 공간개념의 구조도를 체계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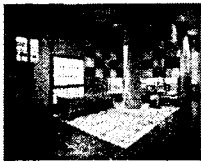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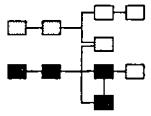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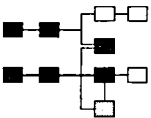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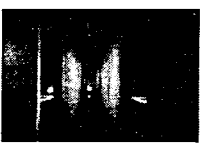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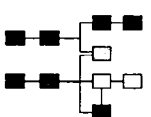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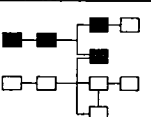




<그림 1> 일본적 공간개념의 구조도

4. 일본적 공간개념의 공간 표현특성

이제까지 살펴본 일본적 공간개념은 어느 한 시점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에서 도출한 공간개념의 분석틀(체계)를 바탕으로 현대의 공간에서도 그 개념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구조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간개념이란 단편적으로는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구성 원리의 상호 연계 속에서 다층적으로 보여지므로 현대 공간사례도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표 2> 현대 실내공간에서의 표현특성

작 품 명	작 품	표 현 특 성
	공간 개념 구조도	
Japanese restaurant 魚心 Saburo Yasuhara		외부에 만든 대기실과 내부 공간 사이에 또 하나의 공간을 존재하게 하여 두 공간을 완충적으로 연결시키는 모호한 경계를 표현하고 있다. 내부의 벽은 외부와 시각적으로 단절되어 있으나 하부를 개방하여 중간정원과 의식적인 연계 관계를 형성시키고 있다. 또한 정원부분은 외부(공공영역)와 시각적 개방관계를 형성하나 바닥패턴과 천장스크린 대나무 오브제등의 조합을 통하여公私영역의 명확한 구분을 암시한다.
		
Dining bar 匣 Hiroki Michushita		출입구가 비스듬히 벽 쪽으로 파여져 내외부가 모호한 공간을 생기게 하고 도로(공공영역)에 면한 출입구 앞에 완충적이고 兩義적인 공간을 만들으로써 내부의 물리적인 구분이 아닌 의식적 구분을 표현하고 있다. 또 파사드에 형성되어진 이 중간영역은 빛과 화면에 의해 물리적인 한정안이 아닌 비일상적이고 의식속의 한정을 표현하는 '罫'의 공간개념을 표현하고 있다.
		
Japanese restaurant きなり Hideki Shigeta		이동 가능한 투과성 스크린에 의해 공간을 구분하고 있다. 임시적인 장치(仮)에 의한 융통적이며 유기적인 공간관계를 형성하는 이러한 공간구분의 표현은 전형적인 '設'의 공간적 표현이다. 여기서는 두 공간을 잇거나 단절시키며 공간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가설적인 물리적 실체에 의해 분리된 공간은 그 투과성과 임시적 장치의 가벼움에 의해 의식적인 연속성을 갖게 된다.
		
Japanese restaurant 壽し長 Kenji Kawabata		차노유의 로지(정원)를 연상시키는 바닥의 모래와 두 벽사이의 중문은 폐쇄와 개방, 외부와 내부의 상호관계를 명확히 하며 '罫'의 공간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運'의 개념과 기능에 의식적인 정화라는 개념이 더해지고 있어 내부의 별세계로 진입하기 위한 통과외려적인 인식의 공간을 표현하고 있다. 또 집, 선, 면의 도식적인 구성이 내, 외부공간간의 상호관계성을 만들어 내고 있다.
		
Hotel Grand Hyatt Tokyo 神前式場 Super Potato 外		격자 형태로 규격화 된 벽과 천장 그리고 바닥까지 꼭 짜여진 틀에 의하여 공간을 감싸므로 물리적인 한정과 의식적인 한정을 동시에 표현하는 '罫'의 공간개념이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공간의 한정감은 비일상적인 개념의 공간을 창출하며 간접조명의 빛으로 둘러싸인 내부는 외부와 격리된 異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표현은 식장이라는 공간의 기능과도 부합되고 있다.
		

Dining bar 月の蔵 Manabu Yanagiya		바닥에 포석의 변형으로 깔린 돌은 원래 신발을 벗는다는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내부와 외부, 외부와 내부라는 공간이동의 기점으로 공간의 단절과 연결이 동시에 형성되는 '罫'의 공간이다. 이 '罫'의 장치는 내 외부라는 이질적 공간의 중간에 위치한 경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돌이 깔려있는 부분에 가설적인 이중스크린을 설치하므로 중간적 공간인 '罫'의 공간을 창출하여 인식적 경계를 연출하고 있다.
Japanese Dining Bar 橙家 Yukio Hashimoto		縁으로 표현되는 중간영역이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구분하고 반투과적인 스크린에 의한 공간구분은 시각적인 측면보다 의식적인 경계관념에 의해 내부공간의 영역성을 표현하고 있다. 물리적인 공간의 연결감은 천장의 단절된 조명라인과 스크린, 테이블의 명확한 형태에 의해 내부공간의 영역을 한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며 '設'과 '罫'의 공간개념을 표현하고 있다.

## 5. 결론

이상으로 일본적 공간을 구성하는 공간개념의 내면적 의미의 고찰로부터 設, 仮, 罫, 縁, 通, 罫의 공간구성원리와 構, 結의 공간 작법, 그리고 총체적인 의미의 空과 間이라는 일본적 공간개념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개념들은 그들의 사상과 미의식등과 함께 일본적 공간을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요한다. 이들의 특징은 意識과 空間이 끊임없이 관계 맺으면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認識적 공간은 단순화된 실체와 모호한 경계체계에 의하여 형성되고 창출되어지고 있다.

空間이란 단어가 일본에서 사용된 것은 space의 번역어로 명치시대 이후부터이고 이를 문자 그대로 직역해도 단순히 물리적 space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 속에 존재하는 공간의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실재하는 물리적 공간을 디자인 하는 데 있어 항상 일본인들은 意識적인 공간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러한 의식의 표현이 지금의 일본적 공간의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1. 伊藤ていじ, 日本 デザイン論, 1971.
2. 井上充夫, 日本建築의 空間, 1971.
3. 和の表情, 商店建築, 2004.
4. 日本住文化研究會, 住まいの文化, 學藝出版社, 1999.
5. 内田繁, 沖健次, Interior Design, 六耀社, 2003.
6. 鈴木茂文, 현대일본주거임기, 국제출판사 이원회역, 1999.
7. 윤장섭, 日本의 建築,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8. 김왕직, 이상해, 일본주택 和室의 형성과정과 현대적 변용에 관한연구, 대한역사학회논문집 18권11호, 2002.
9. 유길동, 노(能)에 나타난 미의식연구, 중대 박론, 2002.
10. 신서균, 일본문화와 신도사상의 조망, 진리논단 No.3, 1999.